

2024  
고2 문학  
지학사

###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3) 어부사시사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직전 보강



선생님! <어부사시사>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어부사시사>에서는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을 함께 물어보기도 하니 표현과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그럼, 특별히 중요한 시어나 시구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주 출제된 시어 및 시구를 정리해 줄게!



- ① 압개에 안개 짓고 뿔뿔히 히 비친다  
→ 대구법을 활용해 아침이 밝아오는 강촌의 모습을 드러냄.
- ②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남.
- ③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 화자의 욕심 없는 삶의 태도와 물아일체의 경지가 드러남.
- ④ 도선(釣船)이 좁다 허나 부세(浮世)과 언더 허니  
→ '도선'과 '부세'를 대조하여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 ⑤ ㄱ는 눈 뿌린 길 불근 곳 훑더던 티 흥치며 거러가서  
→ 색채 대비를 통해 강촌의 겨울 풍경을 드러냄.



특히 ②와 ③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고,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되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 이 작품에 활용된 여음구와 후렴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어.



아~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여음구와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후렴구 말이죠?

그렇지! 이 작품에서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여음구는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리듬감을 높이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해.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들어간 후렴구는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어부의 소리를 음차한 의성어로 작품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흥을 돋우지.



선생님! 그럼 여음구는 화자의 동선을, 후렴구는 화자의 행동을 보여 주는 거네요?

그렇지! 잘 이해했는걸?



아, 선생님, 저의 재능이 두렵습니다…….

호호, 하나 맞췄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돼! 전년도보다 학습 활동에 제시된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귀로 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되었으니, 세 작품을 함께 이해해야만 100점을 맞을 수 있어!



네! 꼭 100점 맞고 올게요!!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어부사시사>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어부사시사>에서는 \_\_\_\_ 및 \_\_\_\_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_\_\_\_의 특징을 함께 물어보기도 하니 표현과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그럼, 특별히 중요한 시어나 시구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주 출제된 시어 및 시구를 정리해 줄게!



- ① 압개에 안개 겹고 뿔뿔히 히 비친다  
→ \_\_\_\_을 활용해 \_\_\_\_이 밝아오는 \_\_\_\_의 모습을 드러냄.
- ②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 \_\_\_\_\_, \_\_\_\_\_의 태도가 드러남.
- ③ 무심(無心)흔 백구(白鷗)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 화자의 \_\_\_\_ 없는 삶의 태도와 \_\_\_\_\_의 경지가 드러남.
- ④釣船(釣船)이 좁다 흐나 부세(浮世)과 얼더 흐니  
→ '\_\_\_\_'과 '\_\_\_\_'를 \_\_\_\_하여 \_\_\_\_에서의 삶에 대한 \_\_\_\_을 드러냄.
- ⑤ 2는 눈 빠린 길 불근 곳 훑더던 디 흥치며 거러가서  
→ \_\_\_\_\_를 통해 강촌의 \_\_\_\_ 풍경을 드러냄.



특히 \_\_와 \_\_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고,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되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 이 작품에 활용된 \_\_\_\_와 \_\_\_\_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어.



아~ \_\_\_\_과 \_\_\_\_ 사이에 있는 \_\_\_\_와 \_\_\_\_과 \_\_\_\_ 사이에 있는 \_\_\_\_ 말이죠?

그렇지! 이 작품에서 \_\_\_과 \_\_\_ 사이에 있는 \_\_\_는 \_\_\_에서 \_\_\_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_\_\_을 높이고 \_\_\_을 돋우는 역할을 해. 그리고 \_\_\_과 \_\_\_ 사이에 들어간 \_\_\_는 \_\_\_것는 소리와 \_\_\_저을 때 \_\_\_의 소리를 \_\_\_한 \_\_\_로 작품에 \_\_\_을 부여하고 \_\_\_을 돋우지.



선생님! 그럼 \_\_\_는 화자의 \_\_\_을, \_\_\_는 화자의 \_\_\_을 보여 주는 거네요?

그렇지! 잘 이해했는걸?



아, 선생님, 저의 재능이 두렵습니다…….

호호, 하나 맞혔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돼! 전년도보다 학습 활동에 제시된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귀로 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되었으니, 세 작품을 함께 이해해야만 100점을 맞을 수 있어!



네! 꼭 100점 맞고 올게요!!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3) 어부사시사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춘사(春詞) 1

[ 압개예(압 갓벌예) 안개 것고(걸히고) 될되희 히 비친다 ]([ ]: 대구법을 활용해 운율을 형성함.)('대구법을 사용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부분에 활용된 대구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빅 떠라(배 띄워라.) 빅 떠라 ]([ ]: 여음구: 각 수마다 다름.(각각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나타냄.))('여음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처럼 여음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여음구를 빈칸으로 제시한 후,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라는 형식의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각 수에 제시된 여음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밤물(샘물)은 거의 다고 날물(밀물)이 미리 온다 ]([ ]: 대구법을 활용해 운율을 형성함.)('현장에서 어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들이 쓰였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지국총(至菊念)(배에서 노를 젓고 달을 감는 소리)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 ]: 후렴구: 고려 가요의 형태적 특징을 이어받음. / '지국총'은 노 젓는 소리(찌그덩-의성어)의 음차, '어사와'는 노 저을 때 어부의 소리(어여차)의 음차('후렴구에서 노 젓는 소리와 어부의 소리를 한자로 음차하여 시상 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후렴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강촌(江村)('강촌'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강촌'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보길도, 작가가 은거한 곳 / 종장 첫 음보 3음절이라는 평시조의 형식을 지키지 않음.) 온갖 고지( :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윗글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시어와 감각적 묘사가 나타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먼 빗치 더욱 도타(중다)

▶ 춘사 1 - 강촌의 봄 풍경

하사(夏詞) 2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안분지족의 삶 / 안빈낙도의 태도 / 소박한 음식)('화자의 궁핍한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해당 부분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수능형, 서술형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화자의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달 드러라(달을 들어라.) 달 드러라

[ 청약립(靑簫笠)(푸른 갈대로 만든 것)은 싸 잇노라 녹사의(綠蓑衣)(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가져오나 ]([ ]: 대구법)

지국총(至菊念)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 무심(無心)흔 백구(白鷗)(욕심 없는 갈매기)논 내 좃논가 제 좃논가 ]([ ]: 물아일체의 경지, 화자의 욕심 없는 삶의 태도 표현)('하사' 종장에서는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른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작품과

연계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거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한자 성어를 쓰라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서 몰아일체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하사 2 - 몰아일체(物我一體)된 삶의 즐거움

### 추사(秋詞) 9

꽃 우희 서리 오되 [ 치운 줄을 모홀로다 ] ([ ]: 추운 줄도 모를 만큼 즐거워하고 있음)(‘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과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 도선(釣船)(낙숫배 /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함.)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속세)과 얽더 하니 ] ([ ]: ‘도선’과 ‘부세’를 대조하여 자연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냄.)(‘도선(釣船)’과 달리 ‘부세(浮世)’에는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도선’과 ‘부세’의 의미 및 해당 부분에 활용된 표현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지국총(至菊念)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닐일도 이리 하고 모뤄도 이리 하자(대구법 / 청유형 어미의 활용 /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낙시하며 사는 것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추사 9: 속세를 잊고 사는 낙시의 즐거움

### 동사(冬詞) 10

어와 저므러 간다(날이 저물어 간다.) 연식(宴息)(편안히 쉬.)(<만흥>과 비교하여 시어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말당토다(마땅하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 [ 마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훗더던 덕(흩어진 데) ] ([ ]: 붉은색과 하얀색의 색채 대비) 흥치며(흥겨워하며) 거러가서

지국총(至菊念)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서산)의 넘도록 ] ([ ]: 시간의 경과 / 날이 저물어 가도록) 송창(松窓)(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을 비겨 잇자(기대어 잇자. / 송창에 기대어 자연을 감상하고자 함.) >(< >: “동사10”에서는 눈 내리는 겨울밤의 흥취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동사 10 - 눈 내리는 밤의 흥취

- 윤선도, 「어부사시사」(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해당 작품의 의미나 표현 방식, 갈래적 특징 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학습 활동에 제시된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귀로 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므로 세 작품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 속으로 지문 분석

[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은 **작가의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戀君)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이 지닌 성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강호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조선 후기 시조에서 '자연'이 지닌 성격)(<어부사시사>는 '강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만족해하는 화자가 자연에서 갖는 여유와 흥취를 드러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 생겨난다. ]([ ]: 조선 전기 시조와 조선 후기 시조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대상의 **심미적**(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것) 가치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되는 것인데,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 작품에서 '자연'은 심미적 가치 그 자체에 주목하는 서정적 면모가 강화됨.)('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고 나서 자연에 빠진 화자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을 나타낸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연군의 정을 드러낸다.'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해당 글을 바탕으로 <어부사시사>를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작품 너머로 지문 분석

가)

≤ [ 창(窓)(답답한 심정을 해소해 주는 통로)('창'의 의미를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 'a-a-b-a' 구조를 활용해 운율을 형성함. /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함.)

[ **고모장지**(고무래(丁자 모양의) 장지문 또는 들창) **세살장지**(가는 살을 가로세로로 좁게 대어 짠 장지) **들장지**(들어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지) **열장지**(좌우로 열여섯하게 된 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빈목걸새**(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러 만든 고리 걸쇠) 크나큰 **장도리**('장도리'는 '화자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재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로 **똥닥**(음성 상징어를 활용함.)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 '창(窓)'과 관련된 사물을 열거하여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삶의 괴로움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학성을 드러냄.)('구체적인 사물을 열거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해당 작품을 <어부사시사>, <귀로 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형식적 차이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세 작품의 형식적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있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 한 화자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남.) >(< >: '<어부사시사>와 해당 작품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시조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나)

≤ **햇살의 고요 속에선**

**ㅍㅍㅍ**(햇살의 고요를 소리로 표현함. / 시각적 심상을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함.)('1연에서 **햇살의 고요를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 : 유사한 문장 구조(~, ~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바람은 쥐가 쏘 듯(직유법)

스스스,(바람의 소리) 문틈을 넘고,(보이지 않는 바람을 시각화함.)(**‘2연에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후두엽**(종장 첫 음보가 3음절이어야 한다는 시조의 형식을 계승함.)(**〈어부사시사〉**,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와 비교하여 시조의 형식상 차이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외진 간이역  
 녹슨 기차 바퀴 소리. ]([ ]: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상상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함.)(**‘3연에서 머릿속에서 나는 상상의 소리를 녹슨 기차 바퀴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 >: ‘초장-중장-종장’ 3장을 각 1개의 연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구를 하나의 행으로 구성함.)

- 이승은, 「귀로 쓴 시」



연계 작품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남들은 읊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뜻나물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긋 몹가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낙뜻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川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강산(江山)이 도타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엄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하야도 해올 일이 업세라.

- 윤선도, 「만흥」

★ 「어부사시사」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부사시사」와 「만흥」은 모두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 「어부사시사」와 「만흥」은 모두 안분지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연계 작품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흑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므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래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래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므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어부사시사」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부사시사」와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음성 상징어로서 흥을 돋우고 운율을 형성한다.
- 「어부사시사」의 후렴구는 「청산별곡」의 후렴구와 달리 한자를 음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어부사시사」의 후렴구와 달리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 연계 작품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쫓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흥노라.

- 작자 미상

★ 「어부사시사」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부사시사」와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는 모두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 「어부사시사」는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에 비해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는 「어부사시사」에 비해 해학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3) 어부사시사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춘사(春詞) 1

[ **압개예**(압 \_\_\_ 에) 안개 **겻고**(겻히고) 될뉘희 히 비친다 ]([ ]: \_\_\_ 을 활용해 \_\_\_ 을 형성함.)('\_\_\_ 을 사용하여 \_\_\_ 을 \_\_\_ 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부분에 활용된 \_\_\_ 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빅 떠라**(배 \_\_\_ ) 빅 떠라 ]([ ]: \_\_\_ : 각 수마다 다름.(각각 \_\_\_ 에서 \_\_\_ 까지의 과정을 나타냄.))('여음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처럼 여음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여음구를 빈칸으로 제시한 후,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라는 형식의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각 수에 제시된 여음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밤물**(\_\_\_)은 거의 다고 **날물**(\_\_\_)이 미러 온다 ]([ ]: \_\_\_ 을 활용해 \_\_\_ 을 형성함.)('현장에서 어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들이 쓰였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지국총**(至菊念)(배에서 \_\_\_ 를 \_\_\_ 고 \_\_\_ 을 \_\_\_ 는 소리)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 ]: \_\_\_ : \_\_\_ 의 형태적 특징을 이어받음. / '지국총'은 노 젓는 소리( \_\_\_ - \_\_\_ )의 음차, '어사와'는 노 저을 때 \_\_\_ 의 소리(어여차)의 \_\_\_ )(‘후렴구에서 \_\_\_ 와 \_\_\_ 를 한자로 \_\_\_ 하여 시상 전개에 \_\_\_ 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후렴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강촌**(江村)(‘강촌’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강촌’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보길도**, 작가가 \_\_\_ 한 곳 / \_\_\_ 첫 음보 \_\_\_ 이라는 \_\_\_ 의 형식을 지키지 않음.) **온갖 고지**( : \_\_\_ 을 나타내는 시어)(**윗글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_\_\_ 을 알 수 있는 시어와 \_\_\_ 묘사가 나타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먼 빗치 더욱 **도타**(\_\_\_)

▶ 춘사 1 - \_\_\_ 의 \_\_\_ 풍경

하사(夏詞) 2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_\_\_ 의 삶 / \_\_\_ 의 태도 / \_\_\_ 한 음식)(‘**화자의 궁핍한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해당 부분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수능형, 서술형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화자의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달 드러라**( \_\_\_ 을 들어라.) 달 드러라

[ **청약립**(靑藥笠)(푸른 \_\_\_ 로 만든 \_\_\_ )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_\_\_\_,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_\_\_ ) 가져오냐 ]([ ]: \_\_\_ )

지국총(至菊念)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 **무심**(無心) **흰 백구**(白鷗)( \_\_\_ 없는 \_\_\_ )는 내 좃논가 제 좃논가 ]([ ]: \_\_\_ 의 경지, 화자의 \_\_\_ 없는 삶의 태도 표현)(‘**하사2’ 종장에서는 \_\_\_ 의 경지에 이른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해당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작

품과 연계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거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한자 성어를 쓰라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서 \_\_\_\_\_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하사 2 - \_\_\_\_\_ (物我一體)된 삶의 \_\_\_\_\_

### 추사(秋詞) 9

꽃 우희 서리 오딧 [ 치운 줄을 모를로다 ] ([ ]: \_\_\_\_\_ 줄도 모를 만큼 \_\_\_\_\_하고 있음.)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과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 도선(釣船)(\_\_\_\_\_/\_\_\_\_\_)에서의 \_\_\_\_을 의미함.)이 좁다 허나 부세(浮世)(\_\_\_\_\_)과 언더허니 ] ([ ]: '도선'과 '부세'를 \_\_\_\_\_하여 자연에서의 \_\_\_\_\_을 드러냄.) ('도선(釣船)'과 달리 '부세(浮世)'에는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처럼 '도선'과 '부세'의 의미 및 해당 부분에 활용된 표현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지국총(至菊念)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닐일도 이리 흐고 모뢰도 이리 흐자(\_\_\_\_\_/\_\_\_\_\_ 어미의 활용 / \_\_\_\_\_에서의 삶에 대한 \_\_\_\_\_) ('낙시하며 사는 것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추사 9: \_\_\_\_\_를 잊고 사는 \_\_\_\_\_의 \_\_\_\_\_

### 동사(冬詞) 10

어와 저므러 간다(날이 \_\_\_\_\_ 간다.) 연식(宴息)(편안히 \_\_\_\_)(〈만흥〉과 비교하여 시어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망당토다(\_\_\_\_\_)

비 붓터라 비 붓터라

< [ 7눈 눈 뿌린 길 붉은 곳(붉은 \_) 훑더딘 덕(흩어진 데) ] ([ ]: \_\_\_\_\_과 \_\_\_\_\_의 색채 \_\_\_\_\_) 흥치며(\_\_\_\_\_하며) 거러가서

지국총(至菊念) 지국총(至菊念) 어사와(於思卧)

[ 설월(雪月)이 서봉(西峯)(\_\_\_\_\_)의 넘도록 ] ([ ]: \_\_\_\_\_의 경과 / \_\_\_\_\_이 저물어 가도록) 송창(松窓)(소나무 \_\_\_\_\_가 비치는 \_\_\_\_\_)을 비겨 잇자(\_\_\_\_\_ 잇자. / 송창에 기대어 \_\_\_\_\_을 \_\_\_\_\_하고자 함.) > (< >: "동사10"에서는 눈 내리는 겨울밤의 \_\_\_\_\_를 \_\_\_\_\_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동사 10 - \_\_\_\_\_ 내리는 밤의 \_\_\_\_\_

- 윤선도, 「어부사시사」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해당 작품의 의미나 표현 방식, 갈래적 특징 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학습 활동에 제시된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귀로 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므로 세 작품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 속으로 지문 확인

[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은 **작가의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戀君)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조선 \_\_\_\_ 시조에서 '\_\_\_\_'이 지닌 성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강호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조선 \_\_\_\_ 시조에서 '\_\_\_\_'이 지닌 성격)(〈어부사시사〉는 '강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만족해하는 화자가 자연에서 갖는 \_\_\_\_와 \_\_\_\_를 드러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 생겨난다. ]([ ]: 조선 전기 시조와 조선 후기 시조에서 \_\_\_\_을 바라보는 \_\_\_\_의 차이) 대상의 **심미적**(\_\_\_\_을 살펴 찾으려는 것) 가치를 작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시조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되는 것인데,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 작품에서 '자연'은 \_\_\_\_\_ 그 자체에 주목하는 \_\_\_\_\_ 면모가 강화됨.)(**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고 나서 자연에 빠진 화자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을 나타낸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연군의 정을 드러낸다.'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처럼 해당 글을 바탕으로 〈어부사시사〉를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작품 너머로 지문 확인

가)  
 < [ 창(窓)(\_\_\_\_을 해소해 주는 \_\_\_\_)(**'창'의 의미를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 '\_\_\_\_' 구조를 활용해 \_\_\_\_을 형성함. / \_\_\_\_을 통해 화자의 \_\_\_\_을 부각함.)  
 [ **교모장지**(\_\_\_\_(丁자 모양의) 장지문 또는 \_\_\_\_)**세살장지**(\_\_\_\_을 가로세로로 좁게 대어 짠 \_\_\_\_)**들장지**(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_\_\_\_)**열장지**(\_\_\_\_로 열어젖히게 된 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빈목걸새**(\_\_\_\_를 걸거나 \_\_\_\_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러 만든 고리 \_\_\_\_)**크나큰 장도리**(**'장도리'는 '화자의 \_\_\_\_을 해소하기 위한 소재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로 **똥닥**(\_\_\_\_를 활용함.)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 '창(窓)'과 관련된 \_\_\_\_을 \_\_\_\_하여 \_\_\_\_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_\_\_\_을 강조하고, 삶의 \_\_\_\_을 \_\_\_\_으로 극복하려는 \_\_\_\_을 드러냄.)(**'구체적인 \_\_\_\_을 \_\_\_\_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해당 작품을 〈어부사시사〉, 〈귀로 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전년도보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형식적 차이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세 작품의 형식적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있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_\_\_\_에 \_\_\_\_을 내고 싶어 한 화자의 \_\_\_\_가 \_\_\_\_으로 드러남.)  
 >(< >: **'〈어부사시사〉와 해당 작품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시조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나)  
 < 햇살의 고요 속에선  
**ㅅㅅㅅㅅ**,(햇살의 \_\_\_\_를 \_\_\_\_로 표현함. / \_\_\_\_심상을 \_\_\_\_심상으로 표현함.)(**'1연에서 햇살의 고요를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 \_\_\_\_문장 구조(~, ~고.)를 반복하여 \_\_\_\_을 형성함.)

바람은 쥐가 쏘 듯( )

스스스,( )의 ( ) 문틈을 넣고,(보이지 않는 을 함.)(‘2연에서 보이지 않는 을 이  
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후두엽( 첫 음보가 이어야 한다는 의 형식을 계승함.)(〈어부사시사〉,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와 비교하여 시조의 형식상 차이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외진 간이역  
녹슨 기차 바퀴 소리. ]([ ]: 에서 나는 소리( 의 소리)를 으로 표현함.)(‘3연에서 에서 나  
는 의 소리를 녹슨 기차 바퀴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 ‘  
- - - ’ 3장을 각 1개의 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를 하나의 으로 구성함.)

- 이승은, 「귀로 쓴 시」

연계 작품 확인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남들은 운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뜻나물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긋 몹가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낙뜻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川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강산(江山)이 도타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엄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하야도 해올 일이 업세라.

- 윤선도, 「만흥」

★ 「어부사시사」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부사시사」와 「만흥」은 모두 \_\_\_\_\_에서의 \_\_\_\_\_ 삶을 노래하고 있다.
- 「어부사시사」와 「만흥」은 모두 \_\_\_\_\_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연계 작품 확인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흑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익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래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래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어부사시사」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부사시사」와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_\_\_\_\_로서 \_\_을 돌우고 \_\_\_\_\_을 형성한다.
- 「어부사시사」의 후렴구는 「청산별곡」의 후렴구와 달리 \_\_\_\_\_를 \_\_\_\_\_하여 사용하고 있다.
-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어부사시사」의 후렴구와 달리 \_\_\_\_\_의 반복으로 \_\_고 \_\_\_\_\_한 느낌을 준다.

연계 작품 확인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쏙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흥노라.

- 작자 미상

★ 「어부사시사」와 연계하여 출제된 내용

- 「어부사시사」와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는 모두 \_\_\_\_\_이고 \_\_\_\_\_인 것을 \_\_\_\_\_로 활용하고 있다.
- 「어부사시사」는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에 비해 \_\_\_\_\_심상이 두드러진다.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는 「어부사시사」에 비해 \_\_\_\_\_성격이 두드러진다.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3) 어부사시사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어부사시사> 작품 개관

갈래	연시조(춘하추동) 각 10수씩 전 40수
성격	풍류적, 전원적, 자연 친화적
주제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적 표현 구조 안에서 다채로운 <b>갑간격</b> 묘사를 시도함.</li> <li>• <b>여음구</b>와 <b>후렴구</b>가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평시조에 변화를 줌.</li> <li>• 여음구를 통해 화자의 <b>동전</b>을,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b>행동</b>을 보여 줌.</li> </ul>

2.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b>자연</b> 을 즐기며 <b>한가롭게</b> 지내고 있음.
화자의 정서	어지러운 <b>인간 세상</b> 을 떠나 <b>자연</b> 에서 사는 것에 <b>만족감</b> 을 느낌.

3.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춘사	온갖 <b>고지</b>
하사	<b>년답</b> , 청약림, <b>독사의</b>
추사	<b>씨리</b> , 치운 줄을
동사	꺾는 눈, <b>떨뿔</b>

4. <어부사시사> 시상 전개

춘사(春詞)	자연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b>음유자</b> <b>짚</b> 하는 심정 →
하사(夏詞)	<b>한가한</b> 어부 생활을 하는 중에 <b>자연</b> 과 <b>하나</b> 가 되는 경지 →
추사(秋詞)	<b>속세</b> 를 떠나 자연에서 사는 <b>즐거움</b> →
동사(冬詞)	<b>속세</b> 에 물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부의 <b>흥겨운</b> 모습

5. <어부사시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시행	화자의 태도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 라	<b>안분지족</b> , <b>안민낙도</b>
무심(無心)한 백구 (白鷗)는 내 좃는 가 제 좃는가	<b>물아일체</b>

TEST 1단계

1. <어부사시사> 작품 개관

갈래	□시조(춘□추동 각 10수씩 전 40수)
성격	풍□적, □원적, 자연 친□적
주제	어□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와 □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적 표현 구조 안에서 다채로운 감□적 묘사를 시도함.</li> <li>• 여□구와 □렴구가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평시조에 변화를 줌.</li> <li>• 여음구를 통해 화자의 □선을,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행□을 보여 줌.</li> </ul>

2.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자□을 즐기며 한□롭게 지내고 있음.
화자의 정서	어지러운 □간 세상을 떠나 □연에서 사는 것에 만□감을 느낌.

3.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춘사	온갖 □지
하사	□납, 청약립, 녹□의
추사	서□, 치운 줄을
동사	□는 눈, □월

4. <어부사시사> 시상 전개

춘사(春詞)	
자연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유□자적 하는 심정	→
하사(夏詞)	
한□한 어부 생활을 하는 중에 □연과 하□가 되는 경지	→
추사(秋詞)	
속□를 떠나 자연에서 사는 □거움	→
동사(冬詞)	
속□에 물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부의 흥□운 모습	

5. <어부사시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시행	화자의 태도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 라	안□지족, 안□낙도
무심(無心)한 백구 (白鷗)는 내 좃는 가 제 좃는가	□아일체

TEST 2단계

1. <어부사시사> 작품 개관

갈래	○ ㅅ ㅈ (ㅈ ㅎ ㅈ ㅈ) 각 10 수씩 전 40수)
성격	표 ㄹ ㅈ, ㅈ ㅅ ㅈ, ㅈ ㅅ ㅈ ㅎ ㅈ
주제	○ ㅈ 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 ○ 와 ㅎ 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ㅈ ㄱ 적 표현 구조 안에서 다채로운 ㄱ ㄱ ㅈ 묘사를 시도함.</li> <li>• ○ ○ ㄱ 와 ㅎ ㄹ ㄱ 가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평시조에 변화를 줌.</li> <li>• 여음구를 통해 화자의 ㅈ ㅅ 을,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ㅎ ㅈ 을 보여 줌.</li> </ul>

2.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ㅈ ㅅ 을 즐기며 ㅎ ㄹ ㄱ 지내고 있음.
화자의 정서	어지러운 ○ ㄱ ㅅ ㅅ 을 떠나 ㅈ ㅅ 에서 사는 것에 ㅈ ㄱ 을 느낌.

3.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춘사	문갓 ㄱ ㅈ
하사	ㄴ ㄴ, 청약립, ㄴ ㅅ ㅅ
추사	ㅅ ㄹ, 치운 줄을
동사	ㄱ ㅅ ㅅ, ㅅ ㅅ

4. <어부사시사> 시상 전개

<p>춘사(春詞)</p> <p>자연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 ○ ㅈ ㅈ 하는 심정</p>	→
<p>하사(夏詞)</p> <p>ㅎ ㄱ 한 어부 생활을 하는 중에 ㅈ ○ 과 ㅎ ㄴ 가 되는 경지</p>	→
<p>추사(秋詞)</p> <p>ㅅ ㅅ 를 떠나 자연에서 사는 ㅈ ㄱ</p>	→
<p>동사(冬詞)</p> <p>ㅅ ㅅ 에 물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부의 ㅎ ㄱ ㅅ 모습</p>	

5. <어부사시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시행	화자의 태도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 ㅅ ㅈ ㅈ, ○ ㅅ ㄴ ㅈ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좃는 가 제 좃는가	ㅈ ㅅ ㅅ ㅈ

TEST 3단계

1. <어부사시사> 작품 개관

갈래	□□□(□□□□ 각 10수씩 전 40수)
성격	□□□, □□□, □□ □□□
주제	□□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와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 표현 구조 안에서 다채로운 □□ □ 묘사를 시도함.</li> <li>• □□□와 □□□가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평시조에 변화를 줌.</li> <li>• 여음구를 통해 화자의 □□을,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을 보여 줌.</li> </ul>

2.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을 즐기며 □□□□ 지내고 있음.
화자의 정서	어지러운 □□ □□을 떠나 □□에서 사는 것에 □□□□을 느낌.

3.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춘사	온갖 □□
하사	□□, 청약립, □□□
추사	□□, 치운 줄을
동사	꺾는 눈, □□

4. <어부사시사> 시상 전개

춘사(春詞)	자연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 하는 심정	→
하사(夏詞)	□□한 어부 생활을 하는 중에 □□□□ □□가 되는 경지	→
추사(秋詞)	□□를 떠나 자연에서 사는 □□□□	→
동사(冬詞)	□□에 물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부의 □□□□ 모습	

5. <어부사시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시행	화자의 태도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 □□□□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

TEST 4단계

1. <어부사시사> 작품 개관

갈래	_____ (_____ 각 10수씩 전 40수)
성격	_____, _____, _____
주제	_____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_____와 __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_적 표현 구조 안에서 다채로운 _____ 묘사를 시도함.</li> <li>• _____와 _____가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평시조에 변화를 줌.</li> <li>• 여음구를 통해 화자의 _____을,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_____을 보여 줌.</li> </ul>

2.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_____을 즐기며 _____ 지내고 있음.
화자의 정서	어지러운 _____을 떠나 _____에서 사는 것에 _____을 느낌.

3.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춘사	몬갓 _____
하사	_____, 청약립, _____
추사	_____, 치운 줄을
동사	꺾는 눈, _____

4. <어부사시사> 시상 전개

춘사(春詞)	
자연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_____하는 심정	→
하사(夏詞)	
_____한 어부 생활을 하는 중에 _____과 _____가 되는 경지	→
추사(秋詞)	
_____를 떠나 자연에서 사는 _____	→
동사(冬詞)	
_____에 물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부의 _____ 모습	

5. <어부사시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시행	화자의 태도
년납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 라	_____, _____
무심(無心)한 백구 (白鷗)는 내 좃는 가 제 좃는가	_____